



아벨라워 3종

진정성을 담은 럭셔리 부티크 싱글몰트 위스키, 아벨라워

1879년 창립자 제임스 플레밍(James Fleming)이 아벨라워 증류소를 설립하면서 탄생한 '아벨라워'는 진정성이 담긴 위스키 한 병으로 진심을 전하겠다는 굳은 신념을 가진 브랜드다.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진심이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며, 최고급 럭셔리 부티크 싱글몰트 위스키라는 수식을 변함없이 지켜나가고 있다. 아벨라워는 제품을 숙성시킬 때 '더블 캐스크 방식'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럭셔리 부티크 싱글몰트로서의 독보적인 정통성을 보여준다. 스페인 셰리 캐스크와 아메리칸 버번 캐스크에서 최소 12년 이상 담겨 있던 원액으로 만든 '더블 캐스크' 방식은 각 캐스크의 개성을 담은 서로 다른 위스키가 합쳐지며 복합적이고 섬세한 맛, 두 배 깊은 풍미를 선사해 부티크 싱글몰트라는 가치를 증명한다. 또 아벨라워 산지의 특성을 제대로 담은 스페이사이드 최고의 위스키를 완성하기 위해 오직 증류소 15마일 이내에서 생산된 최상급 보리만을 사용하는 '15마일의 원칙'을 고수하는 점도 부티크 몰트를 생산하는 열정과 장인정신을 보여준다. 아벨라워의 남다른 진정성과 장인정신은 울로로소 셰리 캐스크의 오리지널 풍미를 그대로 구현해 낸 '아벨라워 아부나호'에 담겨 있다. 19세기 전통 위스키 제조 기법인 '비냉각 여과 방식'(Non-chill filtering)과 오랜 기간 숙성된 위스키 원액을 그대로 병에 넣는 '캐스크 스트렙스'(Cask Strength) 방식을 사용해 핸드메이드

로 만들어져, 럭셔리 부티크 싱글몰트의 정수로 꼽힌다. 특히 소량만을 생산하는 '스몰 배치'(Small Batch) 방식으로 탄생해 희소성의 가치가 더욱 뛰어나다. 아벨라워가 더욱 특별한 것은 숙성 및 생산 방식과 더불어 아벨라워를 만드는 모든 과정에 창립자의 신념인 '말보다 행동으로 실천하라'(Let the DEED show)라는 정신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스페이시한 계곡의 빠른 물살에 휩쓸려 목숨을 잃은 한 소년의 소식에 페니 브릿지를 건설해 또 다시 같은 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막았던 창립자의 정신은 오늘날까지 아벨라워의 장인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 아벨라워는 대표 라인업인 '아벨라워 아부나호'를 비롯해 더블 캐스크 방식이 완성한 두 배 깊은 풍미의 '아벨라워 12년'과 '아벨라워 16년'을 선보이고 있다. 짙은 컬러의 원액이 매력적인 '아벨라워 12년'은 잘 익은 붉은 사과와 향과 스윗한 셰리 맛이 조화를 이루는 제품으로 달콤하고 스파이시한 풍미가 은은하게 여운을 남겨 입 안 가득 풍부함을 선사한다. '아벨라워 16년'은 크리미하고 달콤한 건포도, 스파이시한 견과류 향이 코끝을 맴돌며, 달콤한 서양자두와 순한 오크가 플로럴하고 스파이시한 풍미의 부드러운 조합을 선사한다. ①